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2 Number 12 12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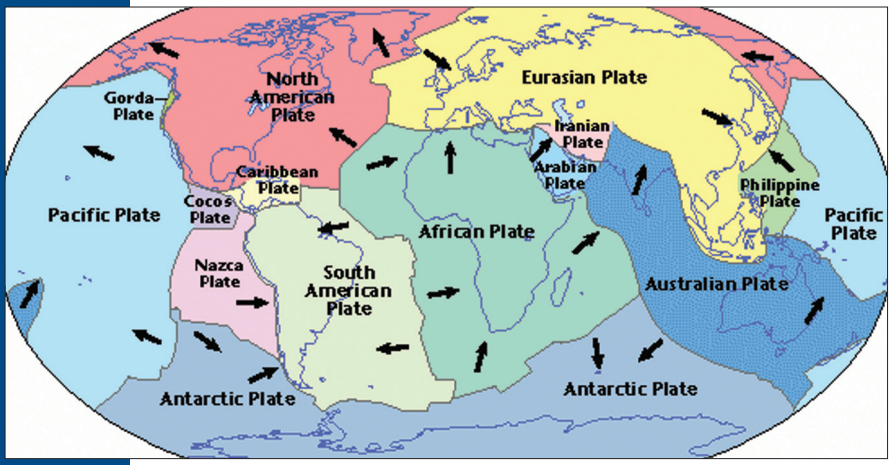
히말라야 산맥의 휘어진 지층

과거에 대륙들이 이동해왔다고 하는데

대륙들이 예전에는 하나였다가 점점 벌어져서 오늘날의 오대양 육대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과거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가 점점 벌어져서 대서양이 되었다는 식이다. 최근에는 대륙이 벌어졌다는 표현보다 대륙 지각(껍데기)과 해양지각이 퍼즐 조각처럼 여러 개의 거대한 판으로 구성되었고, 이 지판들이 과거에 상대적으로 이동해왔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는 분야를 판구조론(plate tectonics)이라고 말한다.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판들이 과거에 이동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창조

P.O.Box 819, Norwalk, CA 90650 / TEL 562 868 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각 지판의 상대적인 이동을 보여주는 그림

론자나 진화론자에게 받아들여지는 바이다. 이는 여러 지질학적 증거들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대양을 사이에 두고 두 대륙의 해안선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 두 대륙의 지층과 화석이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점 등이다.

지판들이 움직여 왔다는 것에는 어느 편에건 반론이 거의 없는 반면, 이들이 이동했었던 속도에 대하여는 서로 이견을 갖고 있다. 수십억 년의 오랜 지구를 주장하는 많은 지질학자들은 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지금의 대륙 위치에 오게 되었다고 여긴다. 이는 오늘날 대륙이 움직이는 속도가 연간 2–16cm 정도인데 이 속도로 과거에도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다. 소위 말하는 동일과정설의 패러다임 하에서 설명하려는 자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런 생각에 회의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지질학자들도 많이 있다. 실제로 오늘날과 그 속도가 같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그 증거들을 본다면 지판들이 과거에는 전지구적인 격변에 의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틀에 잘 맞아 떨어진다.

그 중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만약 지판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였다면 벌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딪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이 부딪치는 곳은 서로 압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들이 있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다. 이들 지판들이 부딪치는 곳에는 산맥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층들은 횡압력을 받아 모두 휘어져 있다. 이런 휘어진 지층을 습곡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물리적 실험을 하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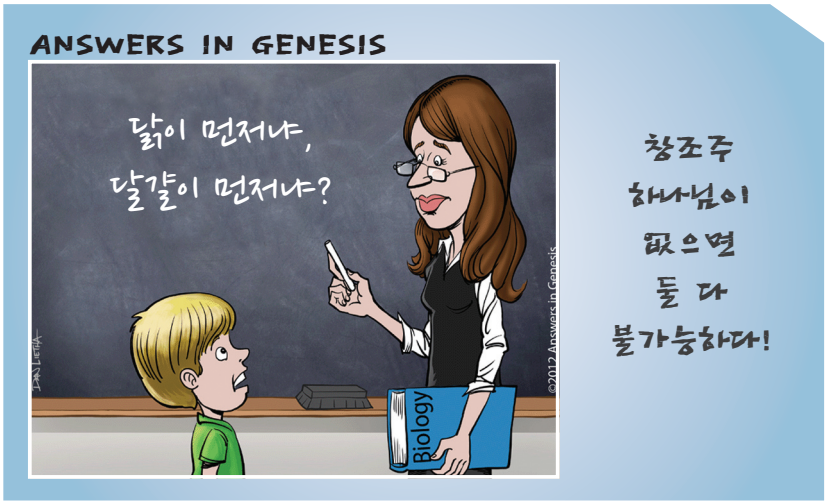
이미 단단해진 암석들은 휘지 않는다. 단지 부서질 뿐이었다. 즉 이런 현상은 지층이 형성된 직후, 즉 아직 지층이 단단하게 굳기 이전에 압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층이 수 개월 안에 굳어진다고 할 때 퇴적 직후의 횡압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더욱이 이 휜 지층들은 두께가 수 킬로, 그 너비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엄청난 횡압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판들이 빠르게 격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을 그려보게 한다. 바로 홍수심판 사건이다. 특별히 전지구를 덮었던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 홍수 후기 과정과 잘 일치한다. 지판들이 서로 움직였다면 어떤 곳은 벌어지고, 어떤 곳은 부딪쳤을 것이다. 그리고 벌어지는 곳은 넓어지고 낮아졌을 것이며, 부딪치는 곳은 좁아지고 높아졌을 것이다. 즉 넓어지고 낮아진 곳은 바다가 되고, 좁아지고 높아진 곳은 산맥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성경이 노아 홍수 때 전지구를 덮었던 물이 감할 때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창 8:3)고 표현한 것은 참 흥미롭다. 즉 지표의 어느 한 쪽은 낮아지고 다른 한 쪽은 높아져 낮아진 쪽으로 물이 모였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낮은 지역인 바다 쪽으로 물이 모이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는가!

즉 노아 홍수 전기에 물이 불어 오를 때 만들어진 지층이 아직 단단해지기 전에 강하고 빠른 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층을 만든 것이다. 즉 지층이 형성되었던 노아 홍수 전기 바로 직후에 땅들이 솟아오른 것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창조과학탐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지난 10월 2-9일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참가자들 중에는 이전에 참가했던 부모나 지인들의 전도차원으로 보내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참가자들의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한국에서 매년 봄과 가을 한 해에 두 차례씩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5월 28일-6월 4일, 10월 8-15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서부지역 순회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10월 10-19일 북미 순회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덴버 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이형만), 시카고 창조과학학교, 랜싱 새소망교회(담임목사 조영호), 콜럼비아 한인침례교회(담임목사 이창열) 등 네 교회를 순회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는 오는 12월에도 벤쿠버와 뉴욕주에서 세미나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세리토스 Coffee Break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10월 21일 세리토스 Coffee Break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노아홍수"와 "동성애에 관하여"의 두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동성애는 최근 미국의 30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미국 상황에서 여러 교회에서 세미나 요청이 있습

니다. 어려운 시기에 과학적, 사회 개인적, 성경적, 역사적 접근을 통해 동성애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제 6기 ITCM 시작

12월 22일부터 8주간 창조과학 집중훈련이 시작 됩니다. 귀한 청년들이 헌신을 하였습니다. 모든 과정과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강사와 참가자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에볼라의 급속한 확산은 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가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아래 글은 Answers in Genesis의 Dr. Elizabeth Mitchell, Dr. Georgia Purdom, and Dr. Tommy Mitchell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에볼라의 급속한 확산은 이미 4,0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그 이전의 에볼라로 인한 피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최초의 인명 피해는 2014년 10월 8일, 달라스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에릭 던컨이라는 환자를 돌보던 두 명의 간호사도 에볼라에 걸렸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접촉했던 신부에 노출된 한 간호사가 에볼라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에볼라가 아프리카 밖에서 전염된 최초의 사례들입니다.

과거에는 단지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만 국한되어서 발병되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다른 것일까요? 에볼라가 의학을 뛰어넘는 다윈주의적 진화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던컨씨의 병력

미국 내의 최초의 피해자인 42세의 라이베리아인인 그는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텍사스로 올 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5일 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고열과 구토, 그리고 복통으로 인해 응급실에 갔습니다. 3일 후 그는 엠뷸런스에 실려 갔고 에볼라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에볼라의 증상은 2일에서 21일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던컨씨는 미국에 오기 1주전, 에볼라에 걸려서 결국은 죽은 이웃을 돕다가 에볼라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던컨씨는 증상이 시작된 지 2주만에 죽었습니다. 그는 증상이 시작된 지 며칠동안 9명의 사람들과 텍사스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과 77명의 병원 직원들이 에볼라에 노출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 아무도 에볼라에 걸리지 않았지만, 던컨씨가 매우 아팠고, 따라서 전염성이 가장 강할 때 오랫동안 간호했던 간호사들은 열이 나기 시작했고, 에볼라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에볼라는 무엇입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방 단백질 껍질에 쌓인 한 줄의 RNA입니다. 모든 바이러스처럼, 에볼라도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살아 있는 생물의 세포내에 있는 일종의 기계장치를 빌려 써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의 세포에 주입하거나, 세포 표면의 수용기와 결합한 후 세포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복제되고 더 많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최초의 바이러스의 복제 바이러스들이 복제된 세포로부터 빠져 나올 때 생깁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특정 과일 박쥐 안에서 잠복한다고 생각됩니다.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전염되는 경로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에볼라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 사람들은 박쥐와 다른 야생 동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사람이 에볼라에 감염되고 증상이 발생하면, 환자의 모든 체액은 바이러스를 포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피부에 난 상처나 눈, 코, 입과 같은 점막을 통해 신체 내부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공기나 체액이 아닌 접촉을 통한 전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발열로 시작하는 에볼라의 초기 증상은 다른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질환과 거의 같습니다: 근육통, 오한, 후두염, 두통, 어지러움, 구토, 설사. 따라서 이것은 진단을 어렵게 하며, 의료진들은 최근 에볼라가 발생한 지역을 간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의 증상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볼라는 출혈열을 일으키는 몇몇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에볼라는 출혈열을 일으키는 몇몇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전염되면서 매우 빠르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 대한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들 바이러스 모두가 78%의 감염자를 사망하게 하는 에볼라처럼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들 출혈열 바이러스들은 서

로 매우 다릅니다. 심지어 감염시키는 장기와 출혈을 일으키는 방식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에볼라는 혈액응고 인자를 만드는 간의 능력을 공격할 수 있고, 환자로 하여금 몸의 많은 모세혈관으로부터 출혈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쇼크, 주요 장기의 멈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환자가 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에볼라에 대한 치료는 없습니다. 몇몇 실험적 약품들이 시도되기는 했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성공"이라는 것도 실패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생존자로부터 항체를 포함한 혈장을 수혈받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던컨씨의 경우 혈액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는 환자가 질병을 이겨내거나 그렇지 못할 때 정맥주사, 산소 호흡기 사용 및 말기시 투석치료를 하는 것 뿐입니다. 에볼라는 체액으로 전염되고, 치사율이 높으며,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돌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아픈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로 인해, 작고 알아차리기 힘든 실수와 이에 따른 노출과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

어떤 사람들은 에볼라가 진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다른 생물이나 바이러스처럼, 에볼라의 유전자는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볼라의 종명은 흔히 그것이 전염된 나라의 이름을 따릅니다. 과거에 에볼라 발병은 몇백명만 사망케 했습니다. 이번 서아프리카의 발병은 이미 4,0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WHO는 에볼라를 "현대의 공공건강에 대한 가장 심각한 급성 위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번의 에볼라 발병이 훨씬 더 심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볼라가 진화하고 있으며,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진화가 우리를 이기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많은 명백히 복잡한 점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요소도 많이 있지만, 독자들은 에볼라의 수학적인 면이 세계적 재앙을 초래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윈주의적 진화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DNA가 세포 내에서 복제될 때, "폴리메라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각 뉴클레오티드를 연결해서 DNA 가 복제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DNA를 교정하는 세포내 장치들은 실수로 복제된 돌연변이를 제거해서 돌연변이의 확률을 낮춰 줍니다. 그러나, 에볼라와 같은 RNA 바이

러스들이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세포내 장치들을 도용할 때, RNA 폴리메라제를 사용합니다. RNA 폴리메라제는 정상적인 인간의 세포에서 DNA를 RNA 의 형태로 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 RNA는 일종의 단백질 공장인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로 사용됩니다. RNA폴라메라제는 스스로 교정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고쳐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디자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정은 이미 앞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RNA 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년 Flu shot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볼라의 경우, 더 많이 퍼져 나갈수록 돌연변이가 생길 기회가 더 많고, 치료하기 더 힘이 듭니다. 이처럼 치료하려는 목표가 계속 변할 때, 치료와 예방주사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화입니까? 아닙니다. 바이러스나 미생물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어떤 돌연변이는 주어진 환경의 도전에 더 잘 견디고 어떤 것은 잘 못 견디게 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이 다음 세대의 "조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나 미생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분자가 인간으로 변한다고 하는 진화(molecule–to–man evolution)의 예가 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학자들은 인간에서 공기를 통해 전염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한번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에볼라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진화했을 수 있다고 하는 최근의 뉴스는 어떻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빨리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자신들을 전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로 만들어 줄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한 유전 정보를 획득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학자들은 인간에서 공기를 통해 전염되지 않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한번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밴더빌 대학의 감염성 질환 전문가이신 윌리엄 쉐프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에볼라에 관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문제(공기를 통한 전염 가능성)를 만들지 맙시다. 그것은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능한 리스트 거의 끝에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신체 접촉을 통한 사람과 사람간의 전염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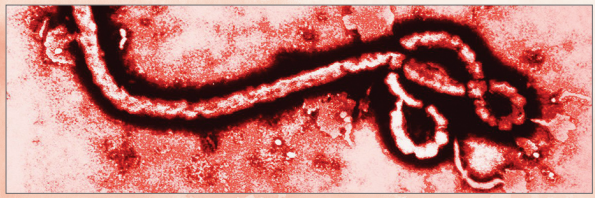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기관지의 세포에 부착할 수 있는 단백질 부착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착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기관지를 통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부착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전염이 매우드문 것이고 거의 항상 제 3자에게로 전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획득하도록 진화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실제 일어

나지 않는) 분자가 인간으로 진화한다는 것 (molecule-to-man evolution)과 (지금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창조된 종류 내의 변이 (variation)의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에볼라가 전혀 새로운 구조를 갖도록 진화할 수 없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생명체가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되게끔하는 새로운 구조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공중보건

던컨씨의 죽음과 간호사로의 전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미국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감염의 노출 위험이 있을 경우 CDC 가 권장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체액과 직접 닿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전염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쉐프너 박사는 항공 여행에 관해, 99.5도의 고열 증상을 가진 한 간호사가 비행기에 탄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에볼라와 접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NBC Nightly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녀 바로 옆 좌석에 앉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에볼라에 감염될 위험은 실제로 제로입니다."

피츠버그 대학 의대의 감염질환 전문의인 아메쉬 아달자 박사는 NBC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에볼라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에서 그것에 걸릴 수 없습니다. 에볼라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의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증상이 열로 시작하기 때문에, CDC 는 서아프리카로부터 온 여행객들이 열이 있는지 스크린 할 것을 권합니다. CDC 관리들은 던컨 씨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던컨 씨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CDC 의 세계 이주 디렉터인 마틴 체트론 박사는, "이러한 감시 장치를 아무리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는 위험도를 제로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고 인정했습니다.

보건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더 전염되는 것을 막으면서 에볼라 환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텍사스의 간호사는 왜 노출되었을까요? 아프리카에서 노출된 보건 인력은 어떻습니까? CDC 의 디렉터인 탐 프리든 박사는,

던컨씨의 경우, 프로토콜을 어긴 것이 분명하며, CDC 는 이 상황을 조사하고 보건 인력에 대한 감염 통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든 박사는 우리가 몇십년에 걸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고, 그것이 따르기 매우 힘들긴 하지만, 격리 처리가 효과적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CDC 디렉터가 단지 간호 인력이 입는 개인 보호 장비의 양만 늘리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크고 무거운 장비를 입는다면 환자를 안전하게 간호하는 것을 더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CDC는 어떻게 생물학적 오염 프로토콜의 위반이 일어났는지 결정하면서, 그 병원의 격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리든 박사는 미국에서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아 내서 21일간 모니터하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격리하는 CDC 의 과정이 에볼라가 미국에서 거대한 유행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왜 바이러스를 만드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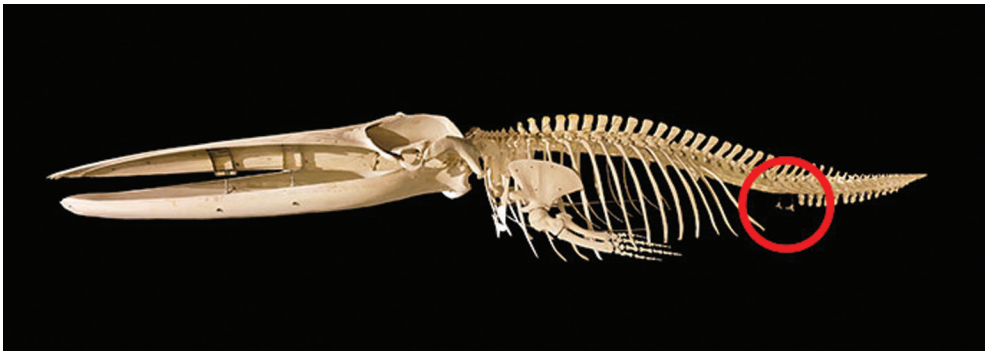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매우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31), 죽음과 고통은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셨고, 그것들은 창조된 종류 내에서만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바이러스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창조된 세상의 일부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와 아마도 닥칠 세계의 긴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만드셨는지 물을 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인한 저주가 있기 전까지는 좋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최초의 바이러스 – 다른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들처럼 – 도 위험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6,000여년에 걸쳐 박테리아 및 모든 다른 종류의 미생물 중에서 질병을 야기하는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이토록 보기에 불편한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원래 이 세상에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되었다는 힌트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리버티 대학의 미생물학자이신 앤드루 파비치의 최근 논문인 "에볼라는 어디에서 왔나요?"라는 글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에볼라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서 가장 최근의 도전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윈주의적 진화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에볼라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서 가장 최근의 도전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윈주의적 진화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학이 직면한 모든 도전들처럼, 이 싸움은 관찰과학적 방법과 환자를 돌볼 위험을 무릅쓴 열정적인 사람들에 의해 치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는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의 의사나 다른 보건인력으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나 진단 혹은 치료에 관한 특정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사와 상의하시거나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번역: 이충현DMD



고래 관골(hip bones)의 실제 기능

동물들의 몇 가지 특징들은 진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되곤 한다. 고래의 관골 (hip bones) 또한 흔적기관 (기능을 상실하고 퇴화하여 흔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여겨지고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예로 생각되는 동물의 기관)으로 사용된다. 진화 옹호자들은 만약 고래의 조상들이 육상 동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현재 다리도 없는 고래가 관골을 갖고 있을 수 있겠냐고 질문한다. 최근 한 연구는 고래 관골의 중요성을 매우 세부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진화론을 약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를 확증해준다.

흔적기관들은 원래 고대 진화적 조상으로부터 진화되면서 퇴화하고 기능이 상실된 몸의 일부 기관으로 일컬어졌다. 예를들어, 사람의 맹장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흔적 기관의 대표적인 예로 생각됐다. 그러나 그동안 행해진 연구들은 맹장이 사람의 소화나 면역 체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맹장의 완벽한 유용성은 진화의 주장을 명백히 무력화시킨다. 하나씩 하나씩, 과학자들은 19세기 자연 주의자들이 흔적기관으로 생각했던 모든 기관이 실제로는 놀랍게 유용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고래의 관골도 진화의 증거 목록에서 지워질 수 있을까? 남가주 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발행하는 USC 소식지에서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의 생각 속에만 있던 오랜 시간 받아들여져 온 진화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저널 진화 (*Journal Evolution*) 는 이 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개재했다.

마크 리들리 (Mark Ridley) 는 그의 대학 진화론 교과서인 Evolution에 이러한

진화적 가정을 "만약에 고래들이 다른 사지 (네 다리) 동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겨났다면 (창조되었다면), 왜 고래는 생식기관을 돕기 위해서 다리 관절을 위해 변화된 뼈 (관골) 를 사용하겠는가?" 라고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질문 그 자체에서 한 가지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 고래의 관골이 실제로 다리 관절을 위해서 변화된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설계된 것인가? 관골이 원래부터 고래의 생식기관을 돕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고래의 "골반대" 가 척추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골반에 연결된 다리들은 아마도 단지 방해만 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고래의 관골이 다리 관절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셨던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설계된 것임을 보여준다.

저널 진화 (*Journal Evolution*) 에 개재한 진화 생물학자들은 고래의 생식기관들의 크기를 분석했고 그것을 전체 몸 크기와 골반대의 크기에 비교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상대적으로 큰 개체는 (수컷 개체) 반드시 상대적으로 큰 좌골해면체근 (ischiocavernosus muscles: 골반의 출구를 닫는 근육 중 외음부에 있는 근육)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데..., 이것은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큰 골반뼈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의미한다." 라고 기록했다. 과학자들은 아직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피조물이 번식하는지 관찰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컷 고래의 눈과 생식기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짝짓기를 하는 동안 조절을 하기위해 다른 장치가 필요함이 분명하고, 그 큰 골반뼈는 그 조절하는 것을 도왔을 것임이 확실하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자연사 박물관의 매튜 딘 (Mathew Dean) 또한 이 연구 보고의 공저자이다.

만약 고래가 다른 사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면, 그 뼈가 땅에서 생존하기에 유용한 흔적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생식 기관을 조절하기 위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결과는 수컷 고래의 골반뼈가 다리가 아닌 생식 기관들을 지탱하기 위해 매우 적절히 설계된 것임을 말해준다. 고래의 관골은 진화하며 사라진 흔적기관이 아니다.

Brian Thomas, M.S. ICR 작가 / **번역: 조희천**(지구물리학 박사과정)

참고문헌

1. Thomas, B. 2012. Ways That Whales Display Their Creator. Acts & Facts. 41 (8): 18-19.

2. Perkins, R. Whale Sex: It's All in the Hips. USC News Release. Posted on pressroom.usc.edu September 8, 2014, accessed September 30, 2014.

3. Dines, J.P. et al. Sexual selection targets cetacean pelvic bones. Evolution. Published online before print, September 3, 2014.

4. Ridley, M. 2004. Evolution. Malden, MA: Blackwell, 60.

창조과학 탐사

간 증

8/5–8/7, 2013

Christine Kim/ OCYN/ 12th Grade

This tour really opened my eyes to realize the difference between creation and evolution. This experience helped me to confirm my beliefs about the creation that God has created for us. I learned that creation is the truth and that God has created each and everything on this earth, and that what I am learning at school is false. I promise to stay true to my faith and do my best to spread the truth about God's creation.

David Nam/ Light and Salt Church/ 7th Grade

I learned that evolution is fake and that people have done many things to try to convince people that it is real. I also learned that dinosaurs didn't live that long ago. I want to use this information to answer people who question me about dinosaurs and God.

Yoo Sung Lee/ Light and Salt Church/ 7th Grade

I have learned about a lot of stuff in this tour but the one that hit me first was the teaching of God's creation. It made me think differently about the world and made my heart feel more peaceful. I will use this to teach other people about the creation of God.

Danny Lee/ Light and Salt Church/ 10th Grade

I learned that evolution is just a mere idea that is being put into our minds. Also that God is the only one for us. All of the facts were really informative. I will use this to answer those in need of answers.

Sophia Kwack/ Mission Community Church/ 7th Grade

I learned a lot more about God's creation. How it didn't take millions of years, but just a few days. How God made everything and everyone unique. God made us with specific qualities that we all needed. Now since I know this, I hope that I can use this information and tell about God's wonders to anyone I meet.

Angela Cho/ Orange County Young Nak Church

I appreciate the background information, resources, and scientific evidences that were presented in this tour, especially during the seminars. It was my second time hearing about this (listened to Ken Ham's lecture a year ago), this tour freshened my memory and given me more specific information. I will be able to support the "creation" with more confidence, knowing that God's words are true.

Ha Rim Kim/ LPKUMC/ Sophomore in College

I learned a lot through this tour about the genesis flood. I was really excited to come and learn the biblical evidence of God's creation. When I heard there was a scientist coming along to explain all about the creation relating to the Bible and I took that chance to come here and I regret nothing about using my free time to learn about God more. This tour made me realize how great God is and help me know where I stand in my spiritual path. And now I understand more about the creation and the genesis flood and the evidence to back it up with Bible.

Isaac Bae/ New Life Vision Church/ 8th Grade

I came on this tour mostly because of my parents, but now I'm very thankful that I came here. I learned a lot about the Flood, evolution, assumptions (radioisotope dating) etc. Now I understand a lot about how the Bible (Genesis) is true.

Dahoon Kim/ OCYN/ 12th Grade

This was a different experience for me. I never realized how young the world really is and what the world does to pull us away from our beliefs. I

learn that not everything we learn at school is true and that the books written for school is written in one point of view.

Inchol Yang/OCYN/Pastor
It was a great time to know how God created this world. In particular, I was impressed by Dr. Kim's passionate endeavors. I appreciate his lecture! Thank you!

Eugene Chang/OCYN/12th Grade
Learned a lot about creation and different ways to defend my faith.

Christine Son/ Joo Sung Mission Church/ Sophomore in College
Grand Canyon was created at one time in a short time span and not over a long period of time. Fact: ~2000 years Adam to Abraham, ~2000 years Abraham to Jesus, ~2000 years Jesus to now. People have always been saying the day is coming.

Joseph Kim/ OCYN/ 11th Grade
I learned about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to defend my faith.

Jennifer Lim/ OCYN/ 11th Grade
I learned about God's beautiful creations, and how it come to be that way. God's power to create beautiful things fascinate me.

Emily Kim/ OCYN/ 8th Grade
I learned about Noah's ark and the creations of God. I am very glad I came on this trip because I learned a lot about God.

Andy Yun/ OCYN/ 7th Grade
I learned that the flood carved out the Grand Canyon.

James Khil/ OCYN/ 9th Grade
I learned about the Old Testament. I learned about 'post-modernism' Thank you.

Andrew Kim/ OCYN/ 8th Grade
I learned some science and the Bible go together.

Joy Joo/ OCYN/ 8th Grade
I learned a lot about the Flood and how Noah took in dinosaurs, too. I'm very thankful for coming.

Da Hyuk Kim/ OCYN/ 10th Grade
I learned that the ark was a box shape. Also stayed through 150 days of storm. The earth is only a few thousand years. Also, the dinosaur were living then, I never thought of that.

Kristine Lim/ OCYN/ Freshman in College
This tour was very educational. I learned a lot, but what I can take from this tour is factual information to back up my religion against people who believe in evolution. I had a lot of questions, but many of mine were answered through the use of science.

Connie Yoo/ OCYN/ Freshman in College
Creation vs. Evolution has been the topic of this tour and it really has strengthened my knowledge on it as well as pushing me towards the right path which is Creation.

Jasmine Chang/ OCYN/Freshman in College
This trip was very interesting. I'm very uncomfortable with science, but the lessons learned were understandable and logical. I'm very glad I got to hear this and see it. It's really undeniable. Everything that didn't make sense before when I was learning material at school, now begins to form a clearer picture in my head. Thank you.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4~2015 ACT Schedule

2014년

12/2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CA
12/11-14 밴쿠버 교회협의회 (이재만), Canada
12/19-20 로체스터 온누리 (이재만)
12/22-2/14 제 6기 ITCM
12/29-31 베다니 장로교회 (EM, 김선욱), GA

2015년

1/5-7 창조과학탐사 (사이판복음교회), 이재만
2/2-11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2/17-20 창조과학탐사 (행복한교회), 이재만
2/24-27 창조과학탐사 (더사랑의교회), 이재만
2/28-3/1 산라파엘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CA
3/2-5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온누리교회), 이재만
4/7-10 창조과학탐사 (R&R), 이재만
4/13-17 창조과학탐사 (수원성교회), 이재만
4/20-26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5-8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5/11-14 창조과학탐사 (시애틀형제교회), 이재만
5/16-21 창조과학탐사 (천안제자교회), 이재만
5/22-29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3-25 창조과학탐사 (ANC온누리교회), 최우성, 김선욱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